메리츠 금융 Daily

2020. 9. 10

은행/지주 Analyst 은경완
02. 6454-4870
kw.eun@meritz.co.kr

보험/증권 Analyst 김고은
02. 6454-4871
goenkim@meritz.co.kr

meritz 메리츠증권

News

14조 '패닉대출'‥빚내서 집사고 주식투자했다 이데일리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한달전보다 14조원 늘어...한달 증가폭으로는 지난 2016년11월(15조2,000억원) 이후 최대 규모
주택대출이 막히자 일부 대출수요가 신용대출로 넘어온 데다 주식투자와 생활자금 수요가 몰린 결과...제2금융권 신용대출도 2조원 늘어

사모펀드 판매잔액, 1년새 7조원 증발… 잇단 사고 여파 조선비즈

금투협, 지난 7월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사모펀드 판매 잔액은 15조9,970억원으로 1년 전(22조8,177억원)보다 6조8,207억원(29.9%) 줄어...
사모펀드 사태를 비껴간 KB국민은행만 유일하게 판매 잔액이 늘었고, 나머지 은행은 모두 30~60%가량 줄어…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그 기간이 끝났음에도 판매 재개 고민

또다시 고개드는 '방카룰' 완화…이번엔 '33%'? 머니투데이

은행들은 저금리 장기화로 이자수익 등이 감소하자 수수료 수익 확보 차원에서 방카슈랑스 규제 완화를 계속 요구...계열사 상품 판매 제한 기존 25%에서 33% 이내로 확대 요청
당국, 판매채널선진화 TF를 통해 방카슈랑스 규제 완화와 관련한 보험업권의 의견 청취 중…업계는 25%룰을 폐지할 경우 은행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반발

7월 카드론 이용 4조···8월에 최고치 찍을까 머니투데이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 · 삼성 · KB국민 · 현대 · 롯데 · 우리 · 하나카드 등 7개 전업카드사의 7월 카드론 이용액은 3조9,891억원으로 전달보다 476억원 증가…
최근 카드론 이용액은 증가했지만 카드 대출 연체율은 안정세를 회복했고 카드론 잔액은 오히려 줄어...대출 수요 확대 흐름은 8월에도 계속 됐을 것으로 추정

금감원, 보험료 안주는 손보사에 무더기 과태료 제재 뉴시스

금감원, 종합검사 결과, 메리츠화재에 대해 과태료 12억1,600만원을 부과하고 과징금 2억4,000만원 ,기관주의…임직원 7명 가운데 2명은 견책, 2명은 주의, 나머지 3명은 주의
메리츠화재, 전화를 이용해 보험계약 체결하는 경우, 음성녹음 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중증치매발생률 부당하게 산정하는 등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위반

10개 보험사 앱 이용자 합쳐도 카뱅 절반 미만…협업 필연 연합뉴스

보험산업이 디지털 환경에서 취약한 고객 접점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언택트(비대면) 환경 전환에 성공적으로 대응하려면 '빅테크'와 공생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
보험연구원,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우위로 인해 보험 가치사슬 전반이 플랫폼에 종속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험보장의 주체가 모호하면 소비자 피해가 생길 수 있다"

IPO가 이젠 핵심…증권사, IPO 역량 강화 집중 머니투데이

코로나19의 여파로 최근 IB부문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상황이지만 IPO는 오히려 조직을 확대 개편하며 존재감을 드러내...
앞으로 남아있는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등 굵직한 IPO에 또 다시 몰릴 것이란 기대감…증권사들은 이미 연초 조직개편을 통해 IPO 조직을 대폭 확대 개편

미래에셋, 美아마존 물류센터에 1900억 투자…증권사 해외 딜 기지개 헤럴드경제

美디벨로퍼 매도 물류센터 세 곳에 우협 선정...가격 매력 낮아졌지만 자본차익 기대감 높아...중국 안방보험과 소송전을 치르면서 위축됐던 해외 실물자산 투자가 다시 기지개
한국투자증권도 타이거대체운용 등과 손잡고 미국 최대 건축자재 유통업체 홈디포의 물류센터 3,000억원 투자…물류센터 중심 해외 딜 기지개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